

정광사 목아박물관

봉축 문화마당 '눈길'

한곳서 음악·전시·공연·강연등 대중과 함께 숨쉬는 퍼포먼스

단일행사에서 탈피해 음악 문화 조형예술 연극 전시 등 여러 장르들이 어우러져 종합 예술로써 부처님 오신날 봉축 행사를 퍼포먼스화 하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정광사(02-598-5291)는 오는 23일·24일 도솔산 도안사(0334-676-8700)에서 파라미터 축전을 개최한다. 23일 저녁 8시 국악인 안숙선씨의 '부처님

일대기' 판소리 테이프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행사는 9시 환청원 사인의 사회로 막이 오른다. 대중과 함께 파라미터 합창단이 찬불가를 부르며 이어 박찬수씨의 '나는 불모 반 아바리달이다' 주제의 강연과

신날인 24일 오전에는 법요식과 시낭송회와 합창, 육불식이 봉행된다. 오후 3시부터는 고은 시인의 특별강연과 인근 죽산초등학교 불자들의 고적대 연주가 감동하게 벌어지며 6시부터는 송암 주지스님과 함께 점등, 인근 주민들이 모두 모여 연등을 들고 농악대를 따라 용살호를 돌며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게 된다.

여주에 위치한 목아박물관과 관(0337-85-9952)은 개관 3주년과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23·24일 정광사 부처님 탄생 찬탄 파라미터 축전

15일 목아박물관 임동창·장사익·굿패 동남풍 출연

불상 조각 시연이 있게 된다. 조각이 실시되는 동안 참가대중들은 석가모니불 정경을 하며 부처님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맞는다. 부처님이 탄생되던 이를 축하하여 '성인종의 성인 이시여' 주제로 김선미씨(창무회장)의 승무가 펼쳐진다. 즉흥연주로 유명한 임동창씨가 음악모임 장이골 사람들과 함께 합주를 벌이며 봉축축전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부처님 오

는 15일 오후 1시와 4시 두 차례에 걸쳐 '목아와 함께 장엄한마당'을 개최한다. 박물관 전담에서 2시간 동안 벌어지는 장엄한마당은 음악 전시 국악 조각 탈춤 음식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이벤트 행사. 임동창씨의 피아노 연주가 벌어지는 가운데 소리꾼 장사익씨가 창을 하고 살풀이 춤이 이어지며 굿패 동남풍이 신나는 사물놀이를 흥을 돋운다. 한해자씨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전국의 절들이 이러한 문화예술을 토대로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면 부처님 오신날은 불자뿐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기다리고 즐겨워하는 국민축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과 함께 숨쉬는 방향들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52>

백년의 손님

宇內百年客 우주 안의 백년의 손님 (우내백년객) 枕邊千里僧 베개머리 천리의 중 (침변천리승) 天山與地水 하늘의 산, 땅의 물 (천산여지수) 隨意任騰騰 마음대로 맡겨둔 등등한 기상 (수의임등등)

이 시는 월제(月落)대사가 '우의(寓意)'라 제한 시이다. 곧 뜻에 맡겨라라는 의미이다. 이렇듯 제목이 시사하듯 이 시는 시간이나 공간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는 자세이다. 사람살이의 실체는 제한된 공간과 유한한 시간 속에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마음가짐에 따라서는 무변의 공간이 나를 위해 있을 수도 있고, 유한한 시간이라도 무한으로 연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백년의 나그네라 함은 온 시간의 간격을 말함이지만, 한 평생이라는 한의 개념이 틀기에 따라서는 찰나의 한 순간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우주는 무한의 공간 속에서 한 평생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것이 못된다. 이렇게 왔다 가는 나그네이다.

에서 깨달음의 세계란 시간의 막힘이 없고 공간에 구애되지 않음을 알았다. 이것을 일러 시무애, 처무애라 함을 실증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런 자유로운 자세이니 이때부터 모든 자연이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보이는 것이다. 저 하늘로만 흐르는 물, 제 높이와 제 깊이를 제 스스로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산은 산 그 자체이고, 물은 물 그 자체이며, 그것들이 저쪽 존재함이 아니라, 하늘은 땅이 있어 하늘의 높음이 유지되고, 땅은 하늘의 높음이 있어 낮음으로서의 물 흐름을 수용할 수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물 수용의 자세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제 스스로 되면서도 자연 질서의 조화에 조금도 역행함이 없이 임의대로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끝 구에서의 마음대로 맡겨둔 등등한 기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시는 이렇듯 스님들의 자유자재한 해탈자적 자세를 음미하기에 적합한 시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박찬갑씨 코펜하겐시 초청

조각가 박찬갑씨가 덴마크 코펜하겐시 유럽공동체 문화수도기념초대전에 초청돼 코펜하겐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코펜하겐시 노다다 미술관(4월 30일~5월 19일)과 호그 스튜디오(5월 10일~24일)에서 각각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박찬갑씨는 한지 풀리주 작품과 조각 그리고 설치미술을 선보인다. 노다다 미술관 전시는 호소리·DMZ를 주제로.

"통일염원 조각 메시지"

남북분단·동양사상등 다채 표현 미술가가 본 비무장지대를 통해 남북분단의 안타까움과 통일에의 강한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호그 스튜디오의 전시는 지난 94년에 이은 양평전시로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모색과 불교사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각과 한지 작품이 전시된다. 주한 덴마크대사관 비어페 라슨 영사는 "우리 코펜하겐에서 박찬갑초청전을 갖게되어 기쁘며 앞으로 한-덴마크 사이에 많은 문화교류가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월 문화인물 조선중기화가 김명국

문화체육부는 '달마도'로 유명한 조선중기 화가 김명국(1600~?)을 5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했다. 대담하고 호방한 필법으로 독창적 화풍을 개척한 김명국은 도화서 명화원으로 공중행사를 위한 병풍제작등 국가적 繪事를 도맡아 했다. 거친 필치와 흑백대비가 분명한 묵법, 날카롭게 각이진 윤곽선 등의 산수인물화에 대담하고 힘찬 선조화를 잘 그렸으며 간결한 붓질로 내면의 정신세계를 표출한 '달마도'는 그의 이러한 화풍을 잘 나타내 주는 대표작이다.

동방고유의 서법정신 '불 기회'

서예가 김응현씨 고회기념전



6~12일 일민문화관

우리나라 서예계를 대표하는 거목 여초(如初) 김응현 선생이 기회를 맞아 대규모 기념 서법전을 갖는다. 5월 6일~12일 광화문 일민문화관에서 갖는 서법전에는 여초선생의 최신작품 1백40여점이 전시된다. "서법은 동방고유의 정신에 슬며서 어떠한 조형예술의 형

신작·전각등 2백여점

9월 전국사경대회 예정

태로도 미칠 수 없는 극치의 추상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전·예·해·행·초서 등 서예의 5체를 포함한 대소 63건 1백40여 점의 작품과 지난 40년대 이후 자각 지용한 70여 점의 전각작품들이 선보인다. 기회를 맞은 여초선생의 서법은 원숙과 웅기(雄奇) 박대(博大)한 경지로 그대로 혼연천성(渾然天成)하고 묘합 자연(妙合自然)하다는 평을 얻

고 있어 '독창적 세계를 확보한 현대 한국서단의 書體'이라는 칭호까지 받고있다. 선생은 서법에만 일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서법학 이론에도 탄의 추종을 불허한다. 서법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해 이를 모아 <書與其人>이라는 저술집을 내고 후학들을 위해 서예의 모든 것을 담은 <동방서예강좌>를 펴내기도 했다. 또한 서법학술전문지 <書通>과 더불어 서예의 대중화를 위한 월간 <書法藝術>을 새로 창간해 서예를 통한 민족정신 증흥과 문화부흥에 노력하고 있다.

평생을 서법에만 정진, 지금까지 7천여 점의 서예를 배출해내 명실공히 한국서예의 꽃을 새롭게 피운 여초선생은 중국 일본 등 국외에서도 수차례의 초청전을 가진 바 있다. 여초선생은 이번 전시후 6월 27일~7월1일 중국 서안 서법 예술박물관, 7월6~10일 항주 절강성박물관에서도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전국사경대회를, 6월에는 제2회 한국전각대전도 주최하는 등 끊임없는 정진을 보여주고 있다. <속>

전시 소식

강정원씨 '달마도'展

은국 강정원씨가 동양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구도심을 표현한 달마도와 자연을 소재로 한 채색화 작품전을 갖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인사동 덕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풍경의 달마도연작시리즈와 심우도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작가의 정신세계를



강정원씨 '달마도'展.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와 더불어 강씨는 '비인(悲願)'이란 제목의 화문집을 발간했다.

한불연 14일~27일 '생명의 근원전'

민족환경운동불교인연합회(회장 강행원)가 주관하는 생태환경미술제 '생명의 근원전'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마포 서남미술관에서 열린다. 우주의 모든 생명은 연기적 관계로 상호연연따라 생멸하며 어

우려져 있다는 생명관이래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뿌리해순(강행원)' '삼-만추의 장(문인상)' '자연-인간(이미숙)' '88-3(정경연)' 등 182인의 작품이 전시된다. (02)715-9306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벽히 출고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현차원 높여 점진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을 기획·제작
 - 사찰의 역사, 배움과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 삼의 현상,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기 할 것 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달 홍보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은 종합불교인문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올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